



#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제17호  
2007. 12. 01

발행인 임기수 설문대어린이도서관 749-0070 http://www.smd.or.kr

애들아,  
새싹으로 함께 피어나자!

도서관 창밖 너머 나뭇잎들이 한 해 동안의 기억을 마무리하며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나뭇잎은 우리 도서관으로 달려오는 해맑은 아이들에 대한 기억도 함께 가져가고 있겠죠. 그러다 새 봄 새싹으로 돌아났을 때 쭉쭉 커버린 아이들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도서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의 키와 웃음과 몸짓을 보면서 항상 부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만 봐도 배가 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쩍한가요?)라고 옆에서 묻는 사람이 있어도 마음만은 부자라고 말하고 싶네요.

올 한해도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을 있었습니다. 우수암으로 매주 책나들이를 나갔고, 어도 병설 유치원으로 행복하게 책을 읽어주러 나갔습니다. 아니, 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도서관 안에서 열심히 책도 읽었고, 재밌게 놀기도 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기억들이 스칩니다. 그중 아무래도 우리 도서관의 가장 큰 일은 '희망의 도서관'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새롭게 새 단장을 하고 더욱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멋진 도서관 모습에 아직 적응을 못하고 가끔 멍하니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만 도서관 사이사이에 스며든 우리들의 정성과 사랑을 느끼고 가끔 마음이 쫄래지기도 한답니다. 항상 설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엄마 등에 업혀와 도서관에서 놀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의젓하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도서관의 힘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작지만 따스한 사랑이 넘치는 공간을 다녀간 아이들은 커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와 나눔으로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크고 편리한 디지털한 도서관이 아니라, 작지만 마룻바닥에서 뒹굴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살아 있는 공간으로 자라나고 싶습니다. 내 집같이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 동네 사랑방 같은 도서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따스하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창밖에 지금도 떨어지는 저 나뭇잎은 새 봄이 되면 새싹이 되어 우리 곁에 돌아오겠죠.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저 나무와 함께 늘 여러분 곁에 있을 겁니다.

2008년 프로그램

- 여근아이 속닥속닥 - 학교밖 글쓰기
- 두린아이 손자파리 - 유아그림책교실
- 역사책 읽는 아이들모임
- 과학책 읽는 아이들모임
- 주말 책 놀이터 "모여라 악당개미들"
- 행복한 책 나들이
- 학부모 독서모임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잔치
- 여름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해요"

■ 도서관 이용시간  
화-토 오전10시-오후6시(여름철 7시까지) | 월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관

##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 작은도서관 재단장 제 4호관, 설문대어린이도서관 희망의 배 띄우다

8월 25일 토요일 새롭게 단장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1998년 10월 10일 처음 문을 연 이래 '아이들이 꿈꾸는 행복한 공간, 누구나 내 집처럼 드나드는 편안한 공간'으로 한결 같은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헌신적인 도서관 선생님들과 책 읽는 엄마모임, 책 읽는 교사 모임, 지역 예술가 등으로 구성된 두터운 인적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우리 도서관은 공공성, 예술 활동, 사회적 글쓰기가 작은 도서관을 통해 성공적으로 꽃피고 있다는 평을 들으며 씩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왔습니다.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프로젝트의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우리 도서관은 불필요한 공간을 나누고 있던 벽을 제거하며 공간을 넓히고, 창문을 이중창으로 바꾸어 고질적인 난방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더불어 바닥에는 전기보일러로 가동되는 온돌을 설치하고, 서가는 모두 천연 원목으로 바꾸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갤러리'라는 별명을 얻은 공원 쪽 창가의 작은 열람 공간, 이늬한 북카페 공간, 천연염색 조각보 패턴으로 한 쪽 벽면을 장식한 프로그램실, 설문대희망의 저고리 모양을 본떠 만든 계단식 열람공간이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처음 문을 열 당시에 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다가 현재의 공간으로 이전하면서 사라졌던 다락방도 뭉게구름 피어나는 아름다운 제주바다에 떠있는 배 모양으로 꾸며진 복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8월 25일 우리 도서관에는 300여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책 읽는 여우 모임에서 국수를 직접 만들어 대접하였는데 그 맛은 어떤 잔칫집 국수보다 일품이었습니다. 또한 마당에서는 밤새워 만든 비닐 강물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대나무잎 배를 만들어 띄우며 놀았습니다. 또한 도서관 안에서는 평화책 전시 100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중 <노란별>이란 책이 벽에 전시되어 찾아온 손님들의 마음을 쫄래게 울렸습니다. 모두들 축하와 격려와 감탄사로 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져간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늘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열 살이 되는 동안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온 우리도서관, 이제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청년의 시기에 접어들며 더욱 알차고 더욱 멋진 모습으로 자라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7 책잔치

**'우수암 아이들'**

올 한해 동안 설문대와 우수암 친구들이 함께 했던 사연을 모아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잔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07년 12월 22일 ~ 23일  
장소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1층 강당



넷째 토요일, 학교 안가는 날. 열두명의 아이들이 설문대로 모인다.

지현이 현아 상준이 태유 선의 현의 현욱이 선혜 가람이 원우 은혜 그리고 다시 지현이.

우리는 악당 개미들이다. 그래서 모두 거리낌없이 수학의 바다에 빠졌다.

규칙찾아 별 그리기, 자기 닮음 나무, 머리를 쥐어 짜고 수포 해결하기, 튼튼한 도형 삼각형만들기, 이등변 삼각형의 아름다움- 종이비행기.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12월의 멋진 계획.. 수학은 수학책이 없어도 학습지가 없어도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다.

그것도 즐겁고 신나게!!!



## 여근아이 속닥속닥 - 글쓰기교실

3월 글쓰기 교실이 시작되었다. 백지를 엮어 글쓰기책을 만들었다.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백지위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싶었다. 어떤 아이는 그냥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쉽지 않은가 보다. 매달 나는 그렇게 책을 엮어서 주었다. 그 때마다 다른 형태의 책을 만들어서는 제목을 쓰게 했다. 10월에는 아예 아이들이 책을 엮었다. 일주일마다 한번 글쓰기시간을 책만드는데 다 썼다. 그 다음 주는 종이 만드는데 한 시간을 다 썼다. 이렇게 한달은 금방 지나가 버렸다. 천천히 가는 글쓰기 시간이고 싶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들은 아이들에게 단지 연습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꼭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때 가서 정말 글쓰는 게 행복하길 바라면서.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글, 최재은 그림의 중요한 사실을 읽었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뭘까?”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질문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들의만의 이야기를 쏟아낸다.

“나에게 중요한 사실은 키가 작다는 거야.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키가 작아 슬프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키가 커서 소외감이 드는 것 같기도 해. 나에게 중요한 사실은 키가 작다는 거야.”

또 나에게 중요한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야. 학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뛰놀고 사이좋게 말하기도해.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거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랑받고 있다는 거야.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선생님, 친구들과, 친척, 모두에게 ..... 어쨌든 나에게 중요한 사실은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



다는 거야” 다 쓰고 나서 발표를 한다.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안 할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아이에게 양해를 구해 내가 읽어주었다. 하지만 한 두 달이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는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나눈 이야기와는 다른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다 소중한 아이들의 이야기다. 그냥 그대로 존중해 준다. 그러다 보니 한달이 다되어 완성한 글쓰기책은 1학년인 경우 참 우습다. 자기가 쓰고 싶은 페이지에 마구 쓰고 글도 위에 갔다가 아래로 가고 제 멋대로다. 한 엄마가 “줄이 없어 애들 글씨가 난리에요” 하며 슬쩍 물으신다. “설문대 글쓰기에서 만큼은 그냥 쓰게 하고 싶네요. 공책에다 예쁘게 쓰는 것, 바르게 쓰는 것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하잖아요.” ‘여근아이 속닥속닥’에서는 아이들이 주인이 되는거다.

가을이 되길 기다렸다. 아이들에게 꼭 읽혀주고 싶은 책 때문이다. 크리스반 알스버그 글,그림의 ‘나그네의 선물’. 1학년부터 6학년, 유수암문고 아이들에게까지 이 책을 읽어주었다.

“나그네가 준 선물은 무엇일까?”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물었다.

“나그네는 1억원을 선물해 주었다. 가을 풍경이 1억원 짜리이기 때문이다.”

여근아이들의 속닥거림은 나를 행복하게 해 주었다. 가을의 아름다움을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책이 있어 가능했다.



## 두린아이 손자파리



우리 도서관에서는 유아그림책 교실을 ‘두린아이 손자파리’라고 부른다 제주도 사투리로 어린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갖고 재미있게 논다는 뜻이다

금요일4시 토요일2시 도서관에 시끌벅적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 도서관을 즐겁게 해주는 그림책 친구들이다. 나는 그림책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을 ‘그림책마니아’ 라고 부른다

6명의 친구들이 모이면 그림책 교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진다.

먼저 그림책을 만나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거행한다. 그림책속으로 떠나는 여행의식을. 그림책표지 이야기를 하고나서 그림책을 들고 “그림책 속으로 뛰어들어” 라고 외치며 책을 친구들이 앉은 자리 향해 빙 돌려준다. 그럼 친구들은 책을 향해 달려간다. 예준이가 “선생님! 저 아직 그림책 속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식이 거행 되지만 두 번이상은 안 된다. “선생님도 책 속에 들어와야죠” 아우성이다 아잠! “선생님도 들어갔다 이제 됐지! 만족한 표정이 된다. 이제 부터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마음만을 갖고 본격적인 그림책 속 여행이 시작 된다

오늘은 존버닝햄의 <구름나라> 책 속으로 들어가 놀아 보기로 했다.

엄마, 아빠와 산에 갔다가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엘버트를 구름나라 아이들이 구해 준다. 엘버트는 구름을 타고 경주도 하고 하늘에서 수영도 하며 구름나라 아이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 아이들의 상상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하늘과 구름 모습을 담은 사진 위에 재미있고 간결하게 그려 넣은 독특한 그림은 우리 그림책마니아들도 아주 재미있어 했다.

지형이가 “선생님! 저 그림 진짜 사진이랑 같이 그림 그린 거죠! 엘버트가 구름나라 친구들과 신나게 노는 장면이 너무나도 부러운 눈치다. “구름나라 주문을 내가 만든다면 어떤 주문을 만들래?” 하자 갖가지 주문이 터져 나온다. “치키치키 차카차카” “뽀로뽀로뽀로” “수리수리마하수리얍” “마빡이.....”

이제 우리는 각자 나의 구름나라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나라 색지를 고르고 구름을 표현할 수 있는 솜, 눈알을 갖고 나만의 구름나라를 맘껏 표현해보도록 했다. 폭신폭신푼 솜을 갖고 조물조물 목공본드로 솜을 붙이고 눈알도 여기저기 붙이고 색종이로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잘라서 솜 위에다 붙여 넣는다. 역시 우리 친구들의 상상력은 너무나 기발하다. 나의 구름나라를 소개하고 각자 만든 주문을 외우며 구름나라에 친구들을 초대했다. 구름나라에서 나오려면 주문을 거꾸로 해야 되는데 친구들이 너무 신나한다. 윤건이 주문은 “마빡이” 인데 거꾸로 주문을 외우자 “이빡마” 되자 웃음보가 터졌다.

하하~호호~

### 후원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 강경남 강경림 강기령 강동근 강동훈 강래화 강만수 강문정 강병삼 강보승 강봉석 강선희 강수민 강수선 강순희 강승희 강영기 강영미 강윤수 강은아 강은희 강인숙 강재희 강정림 강지니 강창화 강평구 강혜영 강희경 고경완 고경희 고만성 고미수 고민자 고복희 고석용 고성범 고성호 고양열 고유경 고윤석 고은희 고의숙 고정숙 고정희 고하라 김경영 김경옥 김경옥 김기욱 김량희 김만생 김명선 김미수 김미주 김성미 김성호 김성환 김소희 김순덕 김승희 김 신 김양열 김연숙 김영미 김영민 김영완 김오순 김옥희 김용식 김용택 김유정 김유철 김윤자 김인영 김재운 김정금 김정은 김정은 김중현 김진옥 김태완 김평숙 김현실 김효숙 김 훈 김희정 문경애 문계양 문금선 문순실 문유성 문인화 문재홍 문정인 문정희 문희현 박계임 박미희 박부자 박정석 박태진 백경환 백혜민 변춘순 부영숙 성영희 송미경 송시우 송지영 송준미 송치우 신우용 안연하 안영애 안은희 안진영 양가에 양다림 양연숙 양용선 양은구 양은숙 양재성 양정옥 양정은 양종수 양진건 양호선 양희연 오성운 오승룡 오승훈 오정심 오정임 오종훈 오지은 오택진 오형범 우상임 우지숙 유종숙 윤경숙 윤경희 윤희순 이경선 이경희 이광복 이덕송 이동삼 이상진 이상현 이상희 이서진 이숙희 이승현 이영미 이영심 이영호 이 옥 이윤숙 이윤형 이은주 이임자 이재철 이정희 이정희 이주영 이지현 이진호 이창건 이창식 이현동 이해연 이호석 이효열 이희숙 임관용 임미숙 임선향 임승희 임정일 장미애 장소영 장현선 정갑열 정동진 정명선 정수연 정영우 정운탁 정운택 조용숙 조운주 좌순자 좌춘자 진민주 진성필 진은아 진창욱 채정심 채희영 최미경 최미자 최형규 한예순 허순영 허 윤 현경미 현경철 현미경 현은재 현을생 현정숙 현정희 홍경호 홍경희 홍덕봉 홍영희 홍은주 홍효정 (이상 222명)

·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성금은 도서관 운영과 신간도서구입에 알차게 쓰입니다.